



[뉴스] 4주년 맞은 이동걸 산은회장 대우조선 노사협조 강조 02



Economy

코스피	3127.86 (+2.10)	코스닥	1026.34 (-11.57)
금리 (미국 3년)	1.525 (+0.024)	환율 (원/달러)	1176.00 (+6.90) (13일)

카카오 규제 2題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제재 착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케이큐브 NCND 유지 공정위, 본사 방문해 현장조사 전원회의 안전상정해 제재 결정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 김 의장과 그의 가족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보고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주식 100%를 김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

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셈이다. 올해 6월 기준 김 의장 보유 카카오 지분은 김 의장 개인 지분 13.30%,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합쳐 총 23.89%이다. 케이큐브홀딩스 임직원은 7명(올해 4월 기준)으로,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 아들상빈 씨, 딸 예빈 씨 등 최소 절반 이상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 말까지는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었다.

앞서카카오는 지난 2016년에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설립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적인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잡고 최근 카카오 본사와 케이큐브홀딩스를 전격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NCND 정책(공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했다면 해명이나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함된 전원회의에 안전을 상정해

온라인 집중 화장품 가맹점 상생은 뒷전

코로나 시국에 화장품 업계가 비대면 및 온라인 부문에 집중하면서 오프라인 채널을 소홀히 대해 가맹점과의 상생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약속과 달리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가맹점 갑질’ LG생건에 제재 에이블씨엔씨·미샤·아모레 등 온·오프라인 가격 차이 논란도

여기에 에이블씨엔씨도 본사와 가맹점 사이 온·오프라인 가격 갈등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7월 미샤 가맹점주협의회는 ‘온오프라인 가격 차이’를 이유로 코로나 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가입했다. 해당 위원회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와 어려움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다.

미샤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의 미샤 화장품 본사 매입 가격은 소비자 권장가격의 55%지만, 온라인 판매가가 가맹점의 본사 매입가보다 저렴해 매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에이블씨엔씨가 내놓은 합의안인 온라인 수익 공유가 각 매장에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며 허상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어려움에 미샤의 오프라인 별도 매출은 지난해 1718억원에서 2019년 900억원으로 47.6% 하락한 바 있다. 지난해 에이블씨엔씨 가맹점 및 직영점은 143개가 폐점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도 온라인몰과의 가격 차별로 갈등이 있었던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을 의식해 조용히 자사 온라인몰 경쟁력 강화를 모색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원미 기자 silverbeauty@

‘금융서비스 제동’ 카카오페이, 청약 흥행 빨간불

공모 희망가 밴드 하향 조정 증권가 “장기 성장성은 유호”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압박에 발목이 잡혔다. 기업공개(IPO) 흥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증권업계는 카카오페이의 장기 성장성은 유호하다고 판단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한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공모 희망가 밴드를 6만~9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9월 29~30일 기

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월 5~6일 일반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카카오페이의 시가총액은 18조원 수준으로 하반기 대어급 공모주로 꼽힌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상장 일정 조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실상 서비스 중단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투자·보험·대출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와 반려동물, 휴대폰보험 등을 지난 12일 잠정 중단했다. 이번에 잠정 중단된 상품들은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었다.

단, 카카오페이의 매출액 비중이 금융 상품 비교보단 결제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장에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의 매출액 2844억원 중 결제 서비스(2016억원) 비중은 71.9%, 금융 서비스(644억원) 비중은 22.7%로 집계됐다.

〈2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

조현준, 포스트코로나 조준... 美 현장경영 쟁점음

〈효성그룹 회장〉

효성, 신시장 확대 동력 확보나서 美 테네시·텍사스주 잇따라 방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친환경 기술을 앞세워 본격적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공략하기 위해 현장 경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8일 수소 경제의 글로벌 패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초고압변압기,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미국 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 환경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기존 1위 사업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시장 확대를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선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서야한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개선에 1조 2000억 달러를 투자키로 해서 회관점자본(SOC)과 에너지·자동차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최근 효성중공업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과 텍사스주 달라스 효성TNS 미국법인을 잇따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조현준 효성 회장(오른쪽)이 효성중공업 테네시주 멤피스 공장에서 빌 하거티 미 상원의원과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효성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당정, 정기국회서 뉴딜 2.0 입법 완비... “모든 역량 집중”
▲ 박용진 “국민의힘·윤석열, 국정원장 끌어들이 물타기 한다” /사진 뉴스스

▲ 정부, UN에 언론중재법 회신... “표현의 자유 보호 노력”
▲ 국민의힘, 공무원 직원 수당 부정수급 엄정한 대응 촉구



▲ 최재형 측 “홍준표, 지지율 도취해 윤석열 외면하는 건 배신행위”
▲ 정의당 “국민의힘, 떳떳하면 고발사주 압수수색 협조를” /사진 뉴스스